

낮아지는 곳에 새로와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낮아져야 나아집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나아지니까 사는 모습이 새로워지고 나아지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기에 물을 기다리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주님은 이 낮은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처녀에게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말씀을 받을 때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눅 1:26).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서 잉태한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헤브론에서 (눅 1:39, 수 20:7)!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씀에 마리아는 육의 생각을 붙이지 않고 순순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례요한을 잉태한지 6개월 된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석달동안 있으면서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을 때까지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눅 1:56).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계시받고, 헤브론에서 아기 예수님을 가졌고, 베들레헬에서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여 마침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헤브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러 들어갈 때 간 곳입니다. 그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민 13:22).

그 근처에서 포도 한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매고 올 정도로 헤브론은 매우 좋은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 13:23). 이 좋은 헤브론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광야의 시험을 이긴 갈렙이 차지한 땅입니다. 광야 40년간의 훈련 중에 오직 여호수와 갈렙만이 불평불만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수 14:6-15 볼 때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갈렙이 아낙 거인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차지한 땅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의 역사는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땅은 다름아닌 무덤이었습니다. 91세에 이삭을 낳은 사라가 127세로 죽자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찾아 막벨라 굴을 샀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헤브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 23:1-2, 19-20). 이렇게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믿음으로 완성하는 아브라함이 첫째째로 얻은 땅은 매장지였습니다 (창 23:4).

헤브론이란 '연합, 교제, 사귀'(association)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라는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과의 사귀가 가능해집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매장시키는 동시에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 안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는 바로 '감절'이란 뜻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감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눈이 열려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고 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것 아닙니까 (왕하 2:9-11)? 막벨라 굴에서 육의 것을 버리고, 영력을 입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박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무엇이 위엿 것이며 아랫 것인지를 또 무엇이 영적인 것이며 육적인 것인지를 분별하는 감절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다해도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시간이나 물질이 아까워집니다. 내 자신도 선뜻 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나를 따를 수 없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 10:38). 나를 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덤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의 무덤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구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연고는 가나안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 동안에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그 땅이 고향이 되었습니다. 막벨라 굴에 사라가 죽은지 48년 후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도, 또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다 묻혔습니다 (창 49:31).

매장지가 낙원에 들어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과연 헛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얻는 구실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 때는 하나님이 없이 하던 땅이었지만 믿음으로 할 때는 이런 땅도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 17:20).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는 곳에 나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 병이라고 전 6:2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누리지 못하는' 병이 다 사라질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곳도 헤브론이었습니다 (삼하 2:11, 5:1-3). 믿음으로 낮아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서 말씀의 약속이 머무는 땅에 서시기를 바랍니다!